

영국에는 선박 건조만 전문으로 대출심사하는 애플도어 Appledore라는 회사가 있어. 그들이 일본 통산성에 한국의 건조 능력을 슬쩍 물어봤더니 5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한국 정부에도 물었지. 당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될 참이라,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5년 뒤면 15만 톤급 한 척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대. 솔직히 그때는 기술 수준이 그랬으니까.

이러니 당연히 돈을 안 빌려줬겠지.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담판을 지으러 롱바텀Charles Longbattom 애플도어 회장을 만나러 영국으로 갔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앞뒷면의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었지.

“여기 선박 보이시오? 영국의 철갑함(ironclad)은 1800년대 중반부터 만든 걸로 아는데, 우리는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친 민족이오. 우리가 근래에 산업화가 늦어져서 그렇지 잠재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오.”

화폐에 나와 있을 정도면 거짓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영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도록 애플도어가 주선해줬다는 거 아냐. 결국 아무것도 없는 울산 미포만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기공했고, 오늘날 전 세계 1등 조선소가 되었지.

아프리카 모로코 지방도시의 전자제품 파는 상점에 갔더니 한국 제품이 절반인데, 일본 제품의 거의 두 배 가격에도 잘 팔린다더군. 러시아 모스크바의 건물에 나란히 달린 에어컨은 모두 한국 제품이더라고.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세상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을까. 나아가 오늘날엔 제조업을 넘어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지. 한국인의 DNA가 뛰어난 면도 있고, 개별 작품의 예술성도 정말 좋아. 그렇지만 제품이 좋다는 것만 가지고 화제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

CJ ENM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K-컬처가 부상하는 데 숨은 공로자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 영화계가 척박하던 시절에도 이재현 회장은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당시엔 믿기 어려운 꿈과 비전을 설파하더라고. 그러더니 1995년에 드림웍스에 투자하면서 할리우드식 영화제작법을 익혀왔지.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에 거주하